

TV 3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05:5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00 채널A 아침뉴스 50 스타 패밀리 송(재)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 손을 잡아>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특집다큐멘터리 <리버 오디세이 6부>	30 아침연속극 <두 여자의 방>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은희>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뉴스 10 50 정치이야기 是是非非	00 30주년 특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튼튼 생활제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50 모큐 드라마<싸인>(재)	00 우리말 겨루기(재) 55 바른말 고운말(재)	10 KBS 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재) 50 VJ특공대(재)	00 특집다큐멘터리 <영성콘서트 지구촌 4부>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00 KBS 뉴스12		00 MBC 정오뉴스 20 나 혼자 산다 스페셜	00 SBS 12 뉴스 30 테마스페셜(재)
1 00 뉴스특보 1~2부	00 2013 KBS 전국 우수 고교 불링대회	00 영상앨범 산(재) 30 힐링투어 아성의 발견(재)	35 앙코르 MBC다큐스페셜 <버닝맨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00 KBC 특별기획 하늘에서 본 남도(재)
2		00 KBS 뉴스타임 10 퀴즈쇼 사총사	35 켈투의 베란디쇼 스페셜	00 SBS 뉴스 10 건강클리닉(재)
3 00 웰컴 투 시월드(재)	00 뉴스토크	00 후토스 미니미니(재) 25 구름행(재) 55 TV 유치원	00 MBC 경제 뉴스 10 헬로 키즈 아하! 역사탐험대	10 SBS 이수인 사이트
4 10 박중진의 뉴스쇼 페도난마 1~2부	00 네트워크 특선 <필름> 55 튼튼생활제(재)	25 코파번지의 동화수시대 55 비터민(재)	00 우리 아이 뇌를 깨우는 101가지 비밀(재) 30 포르로 방울이 친구들	00 최강 탐플레이트 30 푸라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0 KBC 저녁뉴스 15 내마음의 크레파스
6 10 채널A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20 특집다큐 <가장 멋진 도전>	05 세상발견 유레카
7 20 웰컴 투 돈월드(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밤상	50 일일드라마 <루비반지>	15 일일연속극 <오로라 공주>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치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웃나미 주의보>
8 30 생방송 오픈 스튜디오	25 일일연속극 <지성이면 감천>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엄마가 있는 풍경 <미미도>	55 MBC 특별기획 <재왕의 딸 수백향>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진코끼리 세상에 이렇듯이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켈투의 베란디쇼	
10	00 KBS 파노라마 50 생명최전선	00 수목드라마 <비밀>	00 수목미니시리즈 <메디컬 탑팀>	00 드라마 스페셜 <상속자들>
11 00 웰컴 투 시월드	30 KBS 시사인	10 해피 투게더	15 드라마 페스티벌 <상놈 탈출기>	15 오 마이 베이비
12 20 명랑해결단(재) ①:30 이영돈PD 먹거리 X파일(재)	30 인문강단 락(樂) ①:10 네트워크 문화특선 이현철의 음악뮤직 50 뉴턴의 사과나무(재)	30 스포츠 하이라이프 50 세상의 모든 디큐 <대자연의 분노 1부> ①:4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35 MBC 뉴스24 ①:10 MBC 다큐프라임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35 나이트 라인 ①:05 풋볼 매거진 골!

# 천번의 무대, 천번의 감동 '열린 음악회'

## 이미자·소녀시대·바리톤 김동규 등 세대·장르 넘어 '1000회 특집 무대'

“열린음악회”는 세대와 장르 구분 없이 대중과 호흡할 수 있었던 소중한 무대였습니다. 가요계 대표 가수들은 29일 저녁 여의도 KBS 신관에서 열린 ‘열린음악회’ 1000회 특집 방송 녹화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000회 방송을 축하하는 한편 이 무대를 마련해준 제작진과 성원해준 시청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1993년 5월 9일 첫 방송을 한 ‘열린음악회’는 지난 20년간 총 1만6311명의 출연자가 나와 3만5451곡을 연주했으며, 524만 8800명의 관객과 함께 했다. 야외 공연도 293회나 했다.

1000회 특집 방송에는 가요계 원로인 이미지를 비롯해 ‘열린음악회’ 최다 출연자인 인순이, 조영남, 주현미 등과 젊은 가수들인 소녀시대, 투에니원, 김태우, 자유림, 소냐, 알리와 소프라노 김영미, 바리톤 김동규 등이 무대에 섰다.

이미자는 기자간담회에서 “하나부터 천을 세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세야 할까요? 그것도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1000회라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럽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마음을 열었다. 그는 “열린음악회 초창기부터 출연했는데, 이렇게 천회까지 출연했다는 것은 자부심도 느끼고 가슴 벅뚱하다. 앞으로 1만회, 그 이상의 회를 거듭하는 열린음악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인순이 역시 “열린음악회 하면 인순이, 인순이 하면 열린음악회라고 할 정도로 나를 재조명해준 무대라 가슴 속에서 항상 때 놓지 않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이상하게 야외공연에서 비오는 날이 많았는데 관객들이 한 분도 안 빠지고 관람하시고 가수들이나 무용수들 다 같이 비 맞으면서도 즐기며 했던 기억이 많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현미는 “열린음악회에 항상 손꼽히는 기분으로 와서 출연했는데, 내 출연횟수가 81회란 걸 오를 줄 몰랐다. 이렇게 장르 구분 없이 선우배가 같이 할 수 있는 무대가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소녀시대 서현은 “열린음악회는 가수를 꿈꿨던 시절부터 동경하던 꿈의 무대인데, 가수의 꿈을 이뤄서 꿈의 무대에 설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투에니원의 산다라박 역시 “저희 멤버 막내인 민지가 1994년생인데, 열린음악회의 나이가 더 많다. 우리 멤버 모두 열린음악회와 함께 성장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만회까지 계속 돼서 선배들과 같이 이 자리에 서고 싶다”고 했다.

바리톤 김동규는 “열린음악회가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었을까 싶다. 대중이 클래식과 소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KBS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조영남은 “내가 개털일 때 ‘자니윤쇼’와 열린음악회가 생겨서 그 두 개로 재기해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감회 어린 소감을 전했다. 조영남은 “열린음악회 천회를 기념해서 쌍수를 했다”며 최근 쌍꺼풀 수술을 한 눈을 공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15년간 열린음악회를 진행한 아나운서 황



수경은 “얼마 전부터 열린음악회 1000회 축하인사를 받으면서 가슴이 먹먹하다 못해 눈물이 쏟아질 만큼 감격스럽다”며 “1000회까지 무대에 서 있을 거라고 상상 못했는데, 기회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그는 또 “제작진의 노력과 출연진의 헌신을 다하는 모습들,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신 관객들이 함께 이뤄낸 탑이라고 생각한다. 그 탑이 잘 지켜지고 빛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랑과 관심 보내주시면 좋겠다. 우리도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BS

06:10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	10:20 명의의 건강비결	14:30 몬스터 수확나라	18:30 생방송 보나하니
07:00 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피터팬	19:30 TV로 보는 일차 동화
07:15 마이의 모험	(일회성의 내용을 위한 소중한 식사 - 김치찌개와 더덕 된장 무침)	15:30 바두와 친구들	20:00 EBS 뉴스
07:30 꼬마버스 타요	11:20 세계대기획	15:45 똑똑박사 에디	20:20 명의의 건강비결 <우리 몸의 중심을 잡다 척추 전문의-윤도훈 교수>
07:45 로보카 폴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덩동영 유치원(재)	20:30 세계대기획 <부탄>
08:00 똥똥똥 유치원	12:10 연중기획 <북극에는 학교>	16:20 아기 고릴라 동동	21:30 한국기행 <조도>
08:20 꼬마버스 타요	13:05 지식채널e	16:30 코코몽2	21:50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
08:35 방구대장 뽕뽕이	13:10 출가어 수학 EBSMATH	16:45 꼬마버스 타요	22:45 극한직업
08:50 꼬마버스 타요	13:20 사이틴	17:00 방구대장 뽕뽕이(재)	23:15 EBS 특강 <G2시대에 범죄현상을 돌아보다>
09:05 코코몽2	13:30 소피와 친구들	17:15 꼬마버스 타요	24:05 지식채널e(재)
09:20 생활의 비법 <리무진 타는 지리코비, 크라 크의 비밀>	13:45 꼬마 철학자 후고	17:30 종선 꼬마리 발루뽀	24:10 EBS 스페이스 클럽
10:00 한국기행	14:00 잘난 체리누 박사님	17:45 로보카 폴리	
	14:15 장난감 나라의 나라	18:00 마이의 모험	
		18:15 곤	

EBS플러스1

00:00 기본과 특별한 <한국사>	11:40 <화학II>
00:50 내신 6강 <수학II>	12:30 박복의 이슬로 만나는 경제
01:40 포스 <문학I>	13:00 탐스런 <생명과학II>
02:30 <문학II>	14:00 <지구과학II>
03:20 <적분과 통계>	15:00 인터넷 수능 <문학A>
04:10 <기하와 벡터>	16:00 EBS N레 <생활과 윤리>
05:00 <수학II>	17:00 인터넷 수능 <듣기B>
05:50 탐스런 <물리I>	18:00 7080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06:40 고교특강 올림 #포스 <영어특해의 기본II>	19:00 <경제I>
07:30 <Basic Grammar>	20:00 <경제II>
08:20 탐스런 <화학I>	21:00 <수학B형>
09:10 <생명과학I>	22:00 <동아시아C>
10:00 <지구과학I>	23:00 <세계사>
10:50 <물리II>	23:50 지식채널e

EBS플러스2

07:00 한국어 능력 시험대비 강좌	16:10 <과학5-2>
07:30 김주영의 행복한 음악읽기	16:40 <과학6-2>
08:20 매경 TEST 시험대비강좌	17:10 스텝뉴스
08:30 다문화 한국어	17:20 역사 e 뉴스
09:00 출가어 수학 EBSMATH	17:35 사이틴
09:10 중학 1학년 <국어I>	17:45 인형극장 옛날 옛날에
09:50 <수학II>	18:00 특목 직업이 보인다
11:10 <수학II>	18:30 영이영이 살아보기
11:50 중학 2학년 <수학II>	19:00 극한직업
12:30 <과학>	19:30 원더풀 싸이언스7
13:10 중학 3학년 <도덕>	20:20 EBS 문화사리진 <100인의 증언 60년대 문화를 말한다>
13:50 중학 개학 끝정대기 <세계사>	21:00 동업신문 <역사I>
14:30 <한문>	22:00 문화체육 체코업 <과학3-2>
15:10 초등 내공 남남 <과학3-2>	22:40 중학 3학년 <수학3-2>
15:40	

# 선호도 1위 '무한도전'... 국민 예능 인증

## '가요제' 등 꾸준한 기획력으로 팬 관심 이끌어

한국인이 요즘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MBC '무한도전' <사진>이 뽑혔다. 30일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달 21~24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214명에게 전화로 가장 좋아하는 TV프로그램을 묻은 결과 '무한도전'이 13.0%의 선호도로 1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무한도전'은 올해 2월(1위 내 말 서영이)을 제외하고 나머지 아홉 번의 조

사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은 올해 1월부터 매달 조사를 진행 중인데 13%는 전체 조사에서 1위가 얻은 최고 수치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이달에는 2년마다 열리는 무한도전 가요제의 방송으로 20~30대, 하이틴칼라, 대학생 등 기존 팬의 관심이 더 집중됐다”고 해석했다. 2위는 MBC '진짜 사나이'(5.2%)가 차지했고, 이어 같은 방송사의 '아빠! 어디가?'(5.0%), SBS '런닝맨'(4.8%), KBS 1TV '지성 이면 감천'(4.1%)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모든 오늘의 운세

10월 31일(음 9월 27일 庚午)

子	36년생 내리막길로 향하라. 48년생 전무후무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니 무조건 잡아라. 60년생 과감한 결단이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72년생 번복으로 인해 갈등을 하게 된다. 84년생 작각하지 말자. 행운의 숫자 : 28, 73
丑	37년생 정성이 필요 하느니라. 49년생 선별해 낼 수 있는 해안이 절실할 때이다. 61년생 큰 것은 놓치고 작은 것만 붙잡고 있다. 73년생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실연이 중요하다. 85년생 논리가 정립 되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4, 06
寅	38년생 실제로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겠다. 50년생 사람을 가려서 교분을 갖는 것이 좋다. 62년생 근본적인 동기 부여가 절실한 때다. 74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정진하면 기필코 이루어라. 행운의 숫자 : 35, 62
卯	39년생 별 회한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51년생 무능한 다수보다 영향력 있는 하나가 백 내를 것이니라. 63년생 희소식을 접하는 행운이 따를 수 있다. 75년생 상대로부터 인정받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21, 55
辰	40년생 알면서도 속아주는 입장이 되는 모습이다. 52년생 응을할 수 있는 삶의 지혜도 필요하다. 64년생 갈림길에 서 있으니 냉철해야만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다. 76년생 전문성의 확보가 절실할 때다. 행운의 숫자 : 08, 76
巳	41년생 준비하다가 시간 다 가졌다. 53년생 작은 허점이 큰 위험을 자초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국면이니라. 65년생 기자회견 하는 기쁨이 있다. 77년생 가법계 여겨 왔던 것 속에 핵심이 숨어 있다. 행운의 숫자 : 46, 25

午	42년생 모색했을 때 고민은 쉽게 풀리게 되어 있다. 54년생 몸은 고달프더라도 마음은 평안하다. 66년생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어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78년생 어려움을 타쳐도 지혜는 샘솟는다. 행운의 숫자 : 02, 47
未	43년생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55년생 길성이 비추고 있으니 경사가 나겠다. 67년생 조금이라도 위험이 예상 된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79년생 순서대로만 해 나가면 큰 발전이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19, 84
申	44년생 오행으로 인한 구설수가 보이니 제반사에 삼가라. 56년생 합리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 68년생 추진하고자 했던 일은 큰 문제없이 진행 되겠다. 80년생 확인 되지 않았다면 적 응해서는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70, 81
酉	45년생 전문가를 만나야 속 시원한 해결을 본다. 57년생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좋다. 69년생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발원해야 하느니라. 81년생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52, 42
戌	46년생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실행해야 한다. 58년생 작은 조치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70년생 이는 길도 물어 가는 지혜가 있어야 손실을 줄인다. 82년생 한 번 결정 했으면 번복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33, 60
亥	47년생 감정을 제어할 수 있어야만 한다. 59년생 어떻게 하든 지 선행되어야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이다. 71년생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 된다. 83년생 만남의 대화 속에서 귀한 정보를 얻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12, 6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TV 하이라이트

팁푸, 전통을 이어온 사람들



세계테마기행(EBS·오후 8시50분) = 세계에서 가장 전통적인 수도, '팁푸(Thimphu)'에서 부탄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이어간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교통 신호등이 없는 나라로 알려진 부탄 수도에는 오로지 경찰의 수신호로만 자동차들이 통제된다. 휴대폰을 사용하면서도 전통 복장을 한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전통과 현대가 잘 조화된 팁푸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팁푸에서 1년에 한 번 열리는 성대한 축제 '팁푸 세추(Thimphu Tshedu)'를 맞이한 부탄의 모습을 담아본다. 또 미래의 승려를 꿈꾸는 부탄 동자승을 만나기 위해 '치미 라캉' 사원을 찾아간다. 이른 새벽, 불경 외는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동자승들과 함께 부탄인들 마음속 깊이 자리한 불심을 만나본다.

호연, 노비 탈출 성공할까?



드라마페스티벌(MBC·밤 11시15분) = 영의정의 귀한 외아들 호연은 기생 율향에게 마음이 있다. 하지만 평소 율향을 짝사랑하고 있던 호연의 하인 접백은 사랑에 눈이 멀어 호연에게 약을 먹여 기절시킨 후 노비매매장에 팔아넘긴다. 약에서 깨 호연은 낯선 곳, 낯선 이들 사이에서 대체 어떻게 하면 자신이 노비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 답답하기만 하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계층의 삶을 살게 된 호연은 억울함에 처한 노비들을 현실을 알게 되고, 불합리한 구조에서 그들을 구해내고자 팔을 걷기 시작한다.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과거 신분제도에 빚어 풀어낸 사극으로 박기웅이 양반과 노비로 분한 극과 극의 연기를 펼친다.

가마솥 밥맛의 비밀



한국인의 밥상(KBS1·오후 7시30분) = 쌀 한 톨에 담긴 쌀이 일곱 근이나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니 쌀이 밥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큰 수고로움이 있었는지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쌀 한 톨에 담긴 태양의 맛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정성을 담아 마당 가득 구수함이 퍼진다. 뜰에서 돌아와 먹던 고분밥에서 가마솥에 눌러 붙은 누룽지까지, 늘 먹는 쌀밥 한 그릇에 감사의 맛과 추억의 맛을 더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 풍요로운 때문에 일제 강점기, 쌀 6가마를 거두면 5가마를 수탈당하던 아픔을 겪었지만 달콤한 쌀밥에 꼭 어울리는 밥상 문화를 이어왔다. 어머니가 가마솥 뚜껑을 열면 윤기 흐르는 쌀밥에 맛갈 나는 반찬까지, 흡사 보물 상자를 연 것처럼 가마솥 안에는 우리의 밥상이 통째로 들어있었다.